**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2018년 6월 2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을 모두 축일로 지내는 분은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 세 사람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6월 24일에 지내는 이유가 있죠.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엘리자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됩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부터, 6월 24일 요한 탄생 축일은 ‘6월의 크리스마스,’ 혹은 ‘여름의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 성대한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도, 6월 24일은 주로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고 합니다. 6월의 보름달이 뜨는 이 날에는, 예로 부터 벌꿀을 채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의 보름달을 ‘허니 문’이라고 불렀다죠. 보름달이 뜰때 꿀을 채집했다고 해서, ‘허니 문.’

그리고, 예로 부터 6월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6월에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꿀을 채집하기 가장 좋은 6월의 보름달, 즉 ‘허니 문’아래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해서, 지금도 신혼 여행을 ‘허니 문’이라고 한답니다. 보름달 아래서 나누는 사랑이 꿀처럼 달콤했을 겁니다.

6월 24일, 이렇게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날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을 경축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유명한 예언자들: 엘리야, 이사야, 에제키엘, 다니엘 등등. 구약 시대의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점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주팔자나 보고, 미래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맞추거나, 점이나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많던 예언자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의 길을 닦고 준비하러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례자의 출생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유다임금 헤로데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연로한 사제 즈카리야와 성모님의 친척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때 부터, 신비스럽게 묘하게 태어납니다.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기쁜 소식에도 아기의 아버지인 즈카리야는 두려움에 떨며 의심합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죠. 그러다가, 아기의 할례식 때 아기 이름은 천사가 일러준대로 ‘요한’이라고 짓자고  그 이름을 서판에 쓴 후에 비로소 입이 열립니다. 천사가 일러준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큰 인물임을 예고합니다.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 부르는 것은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래전 부터 준비 되었던 하느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이 성인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필요없이, 이유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태어날때 부터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아무 이유없이, 아무 계획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화답송에서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제 오장 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역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복음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 소명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소명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끔, 종종, 살아가는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소명, 세례자 요한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길을 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곳곳에 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에 전해지기 위해서 길을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에 맞게 살아갈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때, 그때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해 질 것입니다.